

北釜山 青年會議所 創立20周年記念

21世紀를 向한 釜山發展 大 討論會



- 일 시 : 1991. 6. 15(토) 14 : 00
- 장 소 : 釜山商工會議所大講堂
- 주 최 : 釜山地區青年會議所
- 주 관 : 北釜山青年會議所
- 후 원 : 부산직할시·MBC 釜山문화방송
釜山日報社·釜山每日新聞社

21世紀를 向한 釜山の 發展方案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북부산청년회의소 김광규회장, 이번 회의에 참가하여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모이신 부산지구 JC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부산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6.25로 초토화된 이 강산에서 맨손으로 뛰어 오늘의 선진한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 동쪽 한구석에 숨어있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을 이고 역사의 선두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젊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대의 세계사는 한국과 한국인을 빼놓고는 기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북부산청년회의소도 한창 일할 수 있는 성년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들을 더욱 내실화하여, 21세기의 지구촌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과 정진을 계속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선진국의 관심사는 국지전쟁과 학원분쟁(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으로 상징되듯이 정치와 사회체제에 있었고, 70년대 부터 탈 이데올로기 시대로 접어들어 과학기술의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와는 달리 국지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은 우리들에게 장미빛 인생을 약속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항상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다루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문제가 되며, 인간성의 문제는 양심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앞두고 1980년부터 특히 선진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대관심사로 대두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러한 내적인 마음의 문제이며, 외적인 과학기술에 비하여 그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해서 마음과 육신



高冠瑞

수산대 대학원 水産物理學科
理學博士課程 修了
한국수산학회 회장역임(86~88)
現 수산대학교 대학원장

을 통일시켜 성숙한 인간을 만드느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몸은 주로 의식주와 같은 외적가치를 추구하고, 마음은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내적갈등을 일으키면서 선택하고 행동하나, 결국은 자기중심적이고도 이기적인 결단을 하게되므로 마음이 하지는대로 하지 못하고 육신이 하지는대로 하게되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21세기를 이끄는 주역은 마음을 주제로 한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민족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과 재원 및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달리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환의 내용이 무엇이나?”하면 여태까지는 자신의 마을이나 국가와 같은 지역적인 발전에만 가치를 두었으나, 이제부터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사회로, 자연정복생활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하는 생활로, 의합적인 성장에서 전반적인 균형으로, 제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등 우리들의 가치관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 하이데커, 야스퍼스, 포레스터 등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생각할 때 아직도 지역위주, 자연정복, 내 종교만의 구원, 성장위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시대를 앞에 두고 신사고의 물결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 어떠한 개인이나 민족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1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는데, 지상에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면 1주일 중 2일을 더 놀아도 현재 우리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세계규모로 적재적소에 생산 및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하루를 더 놀아도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UR를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더라도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채배하여서는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것이고 세계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물건이 되고,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앞으로의 부산을 조망하여 볼 때 21세기의 부산은 이념과 국가의 장벽을 초월한 거대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종전의 국가이자 지역(지방자치제)이라는 공간개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치 미국의 보스턴에서 뉴욕을 지나 필라델피아로 이어진 아메리카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나,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고오베를 연결하는 신 거대도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태평양시대의 국제해양도시로 부산은 울산-부산-마산-창원-진해-거제도를 연결하는 오리엔탈 메갈로폴리스로, 현재의 행정구역체제를 고집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주변도시는 거대한 지역도시로 성장한 부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위치는 일본의 시모노세키-후쿠오카-나가사키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도시와 어울려 더욱 세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서비스업, 거주지역이 혼재하는 지금의 도시기능을 과감히 탈피하여 정보, 통신, 금융, 홍콩의 부산유치, 첨단기술 및 24시간 서비스 체제를 갖춘 국제교역기능과 텔레포트(Teleport)를 새로 조성·육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가덕도의 신 국제공항은 단순한 국제공항이 아니라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의 이·착륙을 겸한 국제공항이 되도록 규모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온 손님이 일단 부산에 내려서, 동경을 가거나 북경에 갈 수 있도록 하면, 부산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중인 한·일터널이 완성되면 국제하이웨이와 연결되는 거제도의 위치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입니다. 대한해협을 30분에 주파하게 되면 일본의 후쿠오카도 결코 먼거리는 아닙니다.

모든 시설과 기술을 차치하더라도 우주왕복선의 이·착륙지가 부산이 된다면 시설과 투자는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되며, 결국 모든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지역의 특성상 현재 절반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항만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의 생산, 수출, 가공, 어선세력 등 수산업의 모든 면에서 전국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의 식량자원을 해양에서 얻기위해서라도 수산해양에 대한 종합적 개발 도시인 마리노피아(Marinopia)계획도 소홀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 도시화, 정보화, 우주화를 논하며 새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래의 부산은 거대도시로 발전하여 이 거대도시에 걸맞는 첨단기술 공장단지(Technotown), 정보단지(Teleport), 국제교역단지, 금융단지, 휴양지와 같은 모든 것을 연결이 동시키는 교통(항만, 공항)수단이 조화 균형을 이루워 마치 5장 6부가 서로 협조하여 건전한 인체를 이루듯이 종합적인 기획과 건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선 알고(情報), 만들어서(技術), 잘 팔아서(流通), 나만이 아닌 인류 모두가 공존, 공생, 공영의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철학과 가치관과 생활구조와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차원으로 번지는 혁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괴롭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다 참되고, 보다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너와 나와 그들을 함께 묶는 우리 모두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묵은 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란 그 성격상 많은 궁리와 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가 많고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견디어 내면 위대한 발전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부산의 JC여러분들은 21세기의 세계를 주도하는 총명한 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北釜山青年会議所創立20周年記念“21世紀に向けての釜山発展大討論会”(91,6,15)
における高冠瑞教授の基調演説

21世紀に向けての釜山の発展方案

創立20周年を迎える北釜山青年会議所の金禎求会長、今回の会議に参加し、知恵と知識を分かち合おうとお集まりになった釜山地区のJCの皆様、そして参席者の皆様！

今日、皆様方をお迎えし、我が釜山の発展方案についてお話させて頂くことを光栄に思います。

我々は、6.25（韓国動乱）で焦土と化したこの山川から、素手で立ち上がり、今日の先進韓国を作り上げてきました。今、韓国は地球の東方の一隅に隠れた“静かな朝の国”ではなく、ほとしばる朝の日ざしを掲げて歴史の先頭隊列に進出した若い国です。それ故に2000年代の世界史は、韓国と韓国人を除いては記録できないものです。

今、北釜山青年会議所も盛んに活躍できる成年になりました。従ってこれまで積み上げてきた業績をさらに内実化し、21世紀の地球村を率いる主翼になれるよう、発展と精進を継続すべき重要な転換期に立っています。

世界大戦以後から1960年代までの先進国の関心事は、局部的戦争と学園紛争（我が国では今日でも問題になっているが）に象徴されるように政治と社会体制にあり、70年代からの脱イデオロギー時代に入ってから科学技術の問題が関心を引くようになりました。

科学技術の問題はイデオロギーや政治体制とは異なり、局部的な問題ではなく世界的な人類共通の問題であります。

ところで、この科学技術は私たちにばら色の人生を約束してくれる反面、人類滅亡をもたらし得るという両面性を持ち合わせるといふ事実をいつも注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科学技術を取り扱うのは人間であるために人間性が問題になり、人間性の問題は良心と倫理の問題であるので究極的には心の問題であります。

従って21世紀を控えた1980年から、特に先進国の若者たちの間での最大の関心事として台頭し扱われている問題が、このような内的な心の問題であり、外的な科学技術に比べて、その関心度がさらに増加しているのが実情である。この心の問題とは“どのようにして心と体を統一させ成熟した人間をつく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人間は体は主に衣食住のような外的な価値を追求し、心は善を追求するために、いつも内的な葛藤を起こしながら選択、行動するが、結局は自己中心的で利己的な決断をすることにより、心がなそうとするがままになせず、肉身がなそうとおもうがままになすようになり、社会のすべての不条理と非理を形成している。

21世紀を導く主翼は、心を主体とした成熟した価値観を持った民族が世界を主導す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それゆえに、釜山が世界の中心になり繁栄するためには、さまざまな政策と財源、戦略も必要であるが、何よりも重要なことは若者たちの心がけであると思います。そうであれば具体的に心をどのように変えねばならないかが問題になります。

“転換の内容が何であるか？”といえは、今までは自分の村であるとか国家だとかいうような地域的な発展にだけ価値を置いてきたが、これからは地域社会から共同社会へ、自然征服生活から人間と自然が調和した生活へと、ういはぶっじょぎん成長から全般的な均衡へと、私の宗教から世界の宗教へなど、われわれの価値観を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します。このことは世界的な碩学ハイデガー、ヤスポス、ポレストなどすべての

学者たちが異口同音に叫んでいることです。わたしたちが釜山について考える時、いまだに地域主義、自然征服、私の宗教だけの救い、成長為主の価値観を持っていないかを反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

地球村時代を控えて新しい思考の波動はとうとうと流れており、いかなる個人や民族の力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状況にまで拡散しています。

われわれは現在1週間に6日働きますが、地上に戦争がなくなれば1週間にもう2日間遊んだとしても現在の我々の生活水準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世界規模で適材適所に生産および分配がなされればもう1日さらに遊んだとしても現在の生活水準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URをいまさらのように論ぜずとも、バナナを我が国で栽培したとしても世界的な競争ができず、またその必要もないのであります。それゆえに最も韓国的なものが最も尊く代切なものであり、世界競争でも生き残れるものになり、芸術になり、文化になり得るのであります。

このような立場から今後の釜山を眺望してみると、21世紀の釜山は理念と国家の障壁を超越した巨大な国際都市へと成長するほかないので、ひとつの都市が、従来の国家でもあり地域（地方自治体）でもあるという空間概念が存在せねばならない。

あたかもアメリカのボストンからニューヨークを経てフィラデルファへと続くアメリカメガロポリスや、日本の東京－名古屋－大阪－神戸を結ぶ新巨大都市に見られるような、環太平洋地帯の国際海洋都市へと、釜山は、蔚山－釜山－馬山－昌原－鎮海－巨済島を結ぶオリエントメガロポリスへと、現在の行政区域体制に固執できなくなり、周辺都市は巨大な地域都市へと成長した釜山と調和をなすよう、その都市の特性を生かした役割分担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ます。

また釜山の位置は、日本の下関－福岡－長崎を結ぶ巨大な海洋都市と一体となって、さらに世界の中心都市へと成長するのであります。

従って、製造業、サービス業、居住地域が混在する現在の都市機能を果敢に脱皮し、情報、通信、金融、香港の釜山誘致、先端技術及び24時間サービス体制を敷いた国際交易機能とテレポートを新たに造成・育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加徳島の新国際空港は単純な国際空港ではなく、宇宙往復船（スペースシャトル）の離着陸を兼ねた国際空港になるよう規模を広範囲に準備し、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からやって来る客が、一旦釜山に降りて東京に行ったりペキンに行ったりできるようにすれば、釜山は世界の中心になるほかないのであります。それだけではなく、現在盛んに推進中の韓日トンネルが完成すれば、国際ハイウェイと連結される巨済島の位置も考慮に入れねばなりません。大韓海峡を30分で走破するようになれば、日本の福岡も決して遠距離ではありません。

諸々の施設と技術はさておいても宇宙往復船の離着陸が釜山になれば、施設と投資は自動的についてくるようになり、結局すべての問題が順理的に解決されると思われます。

地域の特性上、現在の半分程度しか受容できない港湾施設の拡張も重要ではあるが、水産物の生産、輸出、加工、漁船の勢力など水産業のあらゆる面で全国のほとんど半分以上が釜山にできており、将来の食料資源を海洋から得るためにも水産や海洋に対する総合的な開発都市であるマリノピア計画も軽んじられない。

多くの人々が国際化、都市化、情報化、宇宙化を論じ、新しい時代が始まったとしている。この言葉は未来の釜山は巨大都市へと発展し、その巨大都市に釣り合う先端技術工場団地（テクノタウン）、情報団地（テレポート）、国際交易団地、金融団地、休養地のよ

うなすべてのものを結び、移動させる交通（港湾、空港）手段が調和と均衡をなして、あたかも五臓六腑が互いに協助して健康な人体を形成するように、総合的な企画と建設が必要であるという意味である。言い換えれば、まず知って（情報）、作って（技術）、よく売って（流通）、私のみではなく人類すべてが共存、共生、共栄の道を開こう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国の体制が変わ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むしろ哲学と価値観と生活構造と意識構造が変わることを意味します。それは様々な次元で広がる革命を伴います。そして痛く、苦しく、力に余るものであります。しかしそれをよりよく、より美しい創造を来す方向に導くためには、君と僕と彼らをひとつに束ねる我々すべての涙ぐましい努力が必要です。

古き時代が過ぎ去り、新しい時代が開かれるということはひとつの大きな転換期です。

転換期とはその性格上多くの工夫とみきわめを必要とします。問題が多く、かつ複雑に発生するためであります。

しかしその困難を耐えてゆけば偉大な発展の結実を収獲するようになることも事実であります。

何とぞ釜山 I C の皆様方は 21 世紀の世界を主導する聡明な役軍になられ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